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12. 17.(화) 06:00 < 12.17.(화) 석간 > 배포 2024. 12. 16.(월)

한-태국 경제동반자협정(EPA) 3차 협상 개최

- 상품·서비스 등 시장 개방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통상 규범 논의

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(EPA*) 체결을 위한 세 번째 공식 협상이 12.17(화)~19(목)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.

* 경제동반자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 :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,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

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, 기재부, 농림부,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(Chotima Iemsawasdikul) 상무부 무역교섭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이번 3차 협상에 임한다.

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, 서비스, 투자, 원산지, 정부조달, 지재권, 협력 등 올해 3월 협상개시 이후 양국이 논의를 이어온 분야에 더해 통신·금융, 환경·노동 등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상도 본격 개시하기로 한 결과, 총 18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.

태국은 우리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아세안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*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 상대적으로 견실한 교역 인프라 및 제도를 보유한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태국은 한국에서 중간재(반도체, 철강 등) 수입후 美·日·中에 휴대폰, 컴퓨터 저장장치 등 수출

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“정부는 주요 교역파트너와의 적극적인 통상교섭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, 특히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, 교역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”이라고 하면서 “이러한 일환으로 아세안 핵심 국가인 태국과 EP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여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국가들과 교역·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큰 내수시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이러한 지역으로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한 폭넓은 협력기반을 마련할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
※ 추후 사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국현 (044-203-5380)
		담당자	사무관	모덕춘 (044-203-578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